

중요와 미세신공, 두 건물이 위대해지는 방식

글 · 구본준 bonbon@hani.co.kr

모든 나라에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있다. 권위와 신성함, 그리고 다른 건물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보여주려고 지은 것들이다. 왕궁일 수도 있고, 종교 건축일 수도 있고, 또는 최고 권력자의 묘일 수도 있다.

이런 특별한 건물들을 짓는 방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크게 짓는 것이다. 중요한 건물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높게, 또는 길게 짓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쓴다. 나라마다 건축 재료가 다르고, 건축 기법과 양식이 달라도 놀라운 건물, 위대한 건물들은 사람을 압도하는 규모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차이가 없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유럽의 대성당처럼 까마득한 높이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러보게 만드는 높은 건물들도 있지만, 건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더 선호되어 온 방법은 높게 짓기보다 길게 짓기였다. 높게 짓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길게 지어서 생기는 특별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긴 건축물은 높은 건축물보다 신성함과 웅장함을 강조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물, 신성하고 웅장해야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길다. 그리고 길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가 따라붙는다. 기둥을 줄지어 세우는 방식이다.

원래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기둥이 길게 늘어지면 건물 느낌이 특별해진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장중한 느낌이 훨씬 강해 진다. 그래서 기둥을 줄세우는 이 기법은 고대부터 어느 지역에서나 애용되어온 아주 오래된 건축 기법이다. 실제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위해 기둥을 세운 경우도 많다. 멀리 살펴볼 것 없이 우리 국회의사당 건물만 떠올려봐도 된다. 권위를 내세우는 건물에는 늘 기둥이 있다.

기둥이 만들어내는 원초적 힘

실제 세계 여러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건물들은 이렇게 기둥을 줄지어 세워 길게 지은 것들이 많다. 종교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사당

이탈리아의 산 피에트로 성당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지금 인류의 건축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건물들을 보면 이렇게 길어서 특별한 건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건물인 하트셉수트 여왕의 사원이 대표적이다. 기둥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리스의 국가대표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1,000년 먼저 지은 이 건물은 긴 줄기둥 양식으로 신성함을 연출하는 기법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3,500년 전에 지었는데도 건물만 보면 모던한 현대 건물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절제된 디자인이 압도적이다.

가톨릭과 바티칸의 상징 그 자체인 산 피에트로 성당만큼 줄지어선 기둥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길쭉이 건물도 없을 것이다. 거대한 기둥 건물이 광장 전체를 감싸면서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로 만든다. 한 눈에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긴 건물이 만들어내는 원초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에도 이런 길쭉이 건물들이 여럿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빠지지 않는 교토의 명물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는 보기 드물게 긴 목조건축물이다. 한자 이름 그대로 서른세칸짜리 절집인데, 건물 길이가 120미터에 육박한다. 산주산겐도를 이렇게 길게 지은 것은 그 안에 불상 1,001개를 모시기 위해서였다. 까마득히 긴 건물 안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불상이 들어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자, 이 건물을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한 공간으로 만든다.

티벳 불교의 성지인 중국 간쑤성의 라브랑사원도 그 길이가 사람을 사로잡는 놀라운 건물이다. 무려 140개의 기둥이 이어지는 이 건물에는 1,000개의 법륜을 달아놓았다. 이 법륜을 하나 하나 돌리면서 방문자들은 불심을 가다듬는다. 이 사원은 티벳의 상징인 곳으로, 지난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티벳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항거하기도 했다.

종묘, 세월과 함께 쌓인 전통의 무게

이렇게 특별히 길게 지은 국가적 상징 건축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종묘다. 종묘의 정전은 한국에서 가장 긴 목조건물로, 길이가 101미터에 이른다. 기둥들이 웅장함을 강조하는 줄기둥 건물이란 점에서 세계 주요 기념건축물들과 비슷한 구조다.

조선 왕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신성시한 건물은 왕이 정치를 하는 궁궐



종묘 정전

이 아니라 선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인 이 종묘였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도성을 한양으로 옮긴 다음 가장 먼저 종묘와 사직을 지었다. 궁궐보다도 종묘를 먼저 만들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임금이 도성을 떠났다가 돌아온 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 가장 먼저 재건한 건물도 종묘였다.

이렇게 종묘를 중시했던 것은 종묘와 사직이 국가 통치 이념의 근간이자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종묘와 사직'은 그 자체로 국가를 뜻하는 것이 이런 왕조 시대의 통치사상을 잘 보여준다. 종묘와 사직에서 치르는 제사는 왕조 정치의 핵심 의례였다. 종묘에서는 선왕들의 제사를 지냈고, 당연히 나라 최고의 제사로서 최고의 격식과 장엄을 추구했다. 그 제사가 벌어지는 종묘는 당연히 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건축물이어야 했다.

그래서 종묘 건물들은 다른 궁궐 건물들과 달리 최대한 절제된 모양으로 극도의 엄격성을 추구했다. 현세를 초월하는 극한의 단순함과 웅장함이 종묘의 미학이다. 보는 사람을 빨아들이듯 사로잡는 종묘의 놀라운 매력은 이렇게 다른 건물들과는



종묘 영녕전

달리 철저하게 치장을 배제한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다른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길이에서 나온다. 그런데 종묘에는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길이를 강조한 동서양의 다른 유명 건축물들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종묘는 원래부터 긴 건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금 종묘 정전은 19칸짜리 건물이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지은 종묘 정전은 7칸짜리였다. 원래 지었을 때보다 3배 가까이 길어진 것이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조선 왕조의 역사가 계속 되면서 왕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왕의 위패를 모시는 신실이 더 필요해져 여러 번에 걸쳐 증축해나갔기 때문이다. 7칸짜리 정전 건물 동쪽으로 광해군 때 4칸 늘렸고, 이후 영조 때에 다시 4칸, 그리고 현종 때 또 4칸을 늘려 지금의 19칸이 되었다. 동쪽으로부터 계속 길어진 것은 서쪽이 더 높은 곳이 되는 '서상'의 원칙에 따라서다. 서쪽 끝에 태조의 신실을 두고 이후 왕들의 신실은 동쪽으로 순서대로 붙여나갔다.

종묘는 수백 년 세월이 걸쳐 서서히 건물이 길어졌고, 조선 왕조의 종말과 함께 성장을 멈췄다. 지금 종묘가 내뿜는 절대적인 적막감과 웅장함은 처음부터 사람을 규모로 압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건물이 진화하면서 얻어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국가 최고의 건물을 최대한 크게 짓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례차례 넓혀나간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종묘가 한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건물이자 위대한 건물인 이유는 지나친 화려함과 거대함을 추구하지 않고 세월 속에서 쌓아나간 전통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건물에 배어나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세신궁, 시간에 항복함으로써 시간을 정복한다.

종묘처럼 다른 나라 건축들과 전혀 다른 철학으로 지은 놀랍고 독특한 건축물이 일본의 이세신궁이다.

이세신궁은 한국의 종묘처럼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한 건물이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수많은 신들을 지성으로 받들었던 일본 사람들은 신을 모시는 집 신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고신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집으로 이세신궁을 건축했다.

최고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내궁과 농경의 여신인 도요우케 오카미를 모시는 외궁으로 이뤄진 이세신궁은 거의 2,000년 전 지어졌다고 일본인들은 말한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정신문화의 상징 역할을 해온 일본 최고의 성지다.

하지만 가장 신성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세신궁은 그 규모가 결코 크지 않다. 외국의 거대한 석조건축물과 달리 일본 특유의 양식으로 지은 아담할 정도의 목조 건물이다. 이 건물이 진짜 놀라운 것은 신궁이 늘 새 건물이란 점이다.

이세신궁은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짓는 건축물이다. 20년마다 건물을 허물고 옆 빈터에 똑 같은 모양으로 새 건물을 지어 옮겨간다. 서기 260년부터 시작된 이 의식은 일본이 내란을 겪었던 15~16세기를 빼고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지금 건물은 1993년에 61번째로 새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20년마다 나무로 신궁을 새로 짓는 데는 지름이 140센티미터가 넘는 500년 이상의 커다란 나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궁 옆에는 건축용으로 쓸 히노키(편백

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숲 면적은 5,500헥타르에 이르는데, 앞으로 200년 동안 건물을 새로 지을 목재용 나무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이세신궁은 신성한 건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다른 나라 건물들처럼 돌로 짓지 않고 오히려 수명이 짧은 나무로 바뀌 짓는 방식을 생각해냈다는 점에서 진정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라도 영원하지는 못하다. 고대 일본 사람들은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 오히려 시간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법을 선택했다. 건물을 복구하는 대신 허물어서 전통을 유지하는 역발상으로 정신적 가치를 이어간 것이다.

또한 이렇게 건물을 교대로 바꿔 지음으로써 고대부터 지금까지 신궁을 짓는 목조건축법과 스타일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짓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건물을 복구할 경우 초기 건축 기술이 끊길 위험이 있지만 이세신궁은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지으면서 1,500년 전 목조 기법을 전수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유명 역사학자 대니얼 J 부어스틴은 고대 일본 사람들이 창안해낸 이세신

일본의 이세신궁



일본의 이세신궁

궁의 시스템에 대해 “완고한 서양의 건축가들은 그들의 삶이 비록 짧을지라도 돌로 완성한 작품은 영원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본의 목재 건축가들은 그런 논리에 속지 않았다. 오히려 이세신궁에서 그들은, 예술의 생애는 짧더라도 예술의 창조자들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평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세신궁은 시간과 경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에 행복함으로써 시간을 정복한 건물로 불린다.

종묘보다 크고 이세신궁보다 오래된 건물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건물처럼 건물 특유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종묘와 이세신궁은 각각 두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공건물로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가치를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

이 두 건물은 위대한 건물은 그 크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에 시간을 뛰어넘는 건물을 짓지 않고 건물 안에 시간을 담아내 시간과 공존하는 건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종묘와 이세신궁은 진정 위대한 인류 전체의 건축 유산이다.

글 구분준 | <한겨레> 문화부 기자, <http://blog.hani.co.kr/bonbon>